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There Is a Correspondence of Heaven with All Things of the Earth*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5)

지난주, 스베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12장,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There Is a Correspondence of All Things of Heaven with All Things of Man)에 이어 오늘은 13장,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There Is a Correspondence of Heaven with All Things of the Earth)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arcana, 秘義)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볼드체**(굵은 글씨)는 원본을 의미합니다.

※ 글들 중에는 그 끝에 원본 주석들이 있는 글들이 있으며, 거기 나오는, 가령, ‘AC.1632, 1881...’ 같은 숫자들은 ‘Arcana Coelestia’라고, 스베덴보리가 쓴, 총 10,837개의 글로 된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의 글번호를 가리킵니다.

시작합니다.

**103** 상응이라는 게 뭘지 전장에서 쭈욱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육체(肉體, the animal body, the soul’s body)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상응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상 만물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상응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104** 지상 모든 만물은 ‘계’(kingdom)라고 하는 세 종류, 곧 동물계(the animal kingdom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m), 식물계(*the vegetable kingdom*) 및 광물계(*the mineral kingdom*)로 나눕니다.

※ 근대 식물분류학의 시조인 린네에 의해 1738년에 속과 종으로 나누는 분류인 이명법(二名法)이 시작되었고, 이후 현미경의 발달, DNA의 발견 등 기술의 발전으로 그 분류가 더욱 세밀화, 오늘날은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로 분류합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 Species* (종, 種)
- Genus* (속, 屬)
- Family* (과, 科)
- Order* (목, 目)
- Class* (강, 綱)
- Phylum* (문, 門)
- Kingdom* (계, 界)

동물계에 속하는 것들은 일 등급 상응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식물계에 속하는 것들은 이 등급 상응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라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지요. 광물계에 속하는 것들은 삼 등급 상응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도, 자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계 상응들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living creatures*)로, 땅 위를 걷고, 기고 하는 것과 공중을 나는 것 등 특별히 언

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잘 알려진 것들이지요. 식물계 상응들은 정원과 숲, 들과 초원에 풍성하게 자라는 온갖 것들로서, 이들 역시 다 잘 알려져 있어 일일이 거명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광물계 상응들은 귀금속과 보통 금속, 보석과 돌,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물입니다. 이들 외에도 인간의 어떤 유용한 활동을 통해 이들로부터 나오는 것들 또한 모두 상응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음식, 옷, 집 및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말이지요.

**105** 또한 땅 위 공중 및 하늘에 있는 것들, 가령, 해, 달, 별, 그리고 대기 중의 구름, 안개, 비, 천둥과 번개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응들입니다. 빛과 그림자, 더위와 추위 같은, 해의 출몰로 말미암는 것들 또한 상응들이며, 그로 인해 말미암는 것들, 가령, 춘하추동 사계절과 하루 중 아침, 낮, 저녁 및 밤 역시 상응들입니다.

**106** 한마디로, 자연계 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까지 다 상응들입니다.<sup>76</sup>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 76. 이 세상과 그 세 종류의 ‘계’ (kingdom)에 속한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천적인 것들(*the heavenly things*)과 상응, 즉 자연계에 있는 것들은 영계에 있는 것들과 상응 (A.C.1632, 1881, 2758, 2760 - 2763, 2987 - 3003, 3213 - 3227, 3483, 3624 - 3649, 4044, 4053, 4116, 4366, 4939, 5116, 5377, 5428, 5477, 9280) 상응에 의해 자연계는 영계와 결합 (A.C.8615) 이런 이유로, 모든 자연은 주님의 나라를 표상하는(表象, *representative*) 일종의 극장 (A.C.2758, 2999, 3000, 3483, 4938, 4939, 8848, 9280)

이들이 다 상응들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자연계는 영계로부터 생겨나고 존속하며(*springs forth and subsists*), 이 둘은 또한 신성(神性, *the Divine*, 주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을 일컬어 존속한다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자기가 생겨난 것으로 말미암아 존속하기 때문이며, 존속이란 일종의 항구적 생겨남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속할 수는 없고, 대신 자기보다 먼저 있는 것, 곧 처음 있는 것을 통해서만 존속 가능하기 때문인데, 만일 어떤 것이 그 처음 존재로부터 분리가 되면, 분리된 그것은 철저히 소멸되고, 말라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실개천들은 그 본류인 강줄기로 말미암아 존속하며, 만일 강줄기가 마르거나 강줄기로부터 물흐름이 차단되면 실개천은 곧 말라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5)

107 신성한 질서(*Divine order*)에 따라 생겨나고 존속하는 자연계 내 모든 것이 일종의 상응입니다. 신성한 질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한 선(*the Divine good*)에 기인합니다. 신성한 선은 주님 안에서 시작, 흘러나와 차례대로 천국을 거쳐 이 세상 안으로, 그리고 그 최종단에서(*in outmosts*) 끝나는데요, 거기, 질서에 맞는 모든 것이 다 일종의 상응입니다.

※ 스페덴보리에 의하면, 가장 안쪽 동심원을 *inmost*, 그 다음부터 차례로 *internal, interior, exterior, external*, 그리고 맨 끝, 바깥 테두리 원을 *outmost* 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이 선과 쓰임새에 딱 맞는(*good and perfect for use*)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데요, 모든 선은 그 쓰임새만큼만 선하기 때문이며, 반면, 그 형태(*form*), 외형은 진리와 관련되는데, 진리는 선의 외형, 곧 선이 담긴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온 세상과 거기 있어 그 본성(*nature*)이 신성한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선과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sup>77</sup>

※ 77. 피조세계, 곧 천국과 세상, 둘 다에 있으면서 질서와 부합하는 모든 것이 선과 진리에 관련됨 (A.C.2451, 3166, 4390, 4409, 5232, 7256, 10122) 그리고 이들 선과 진리의 결합과도 관련됨, 그래야 무언가가 될 수 있기 때문 (A.C.10555)

108 세상 만물이 신성에서 생겨나 자연에 있는 것들로 옷 입는 이유, 곧 그것들로 하여금 거기 존재하며, 쓰임새를 수행하고, 상응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동, 식물계 양쪽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 즉 사람도 영(靈)이 육(肉)이라는 옷을 입어 이런 모습으로 보이듯 세상 모든 만물도 신성이 자연이라는

옷을 입어 저렇게 보이는 것이며, 그 이유는 존재와 쓰임새, 그리고 상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양쪽에는 내적으로(*interiorly*)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으로 말미암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들 중 그 사례로 몇 가지만 좀 들어보면, 먼저 동물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은 모든 동물은 마치 접목, 이식된 것처럼 어떤 지식을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 즉 사람은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 학습을 통해 지혜로워지지만 그럴 수 없는 동물은 아예 처음부터 그 본능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부여받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벌들은 꽃에서 꿀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꿀을 저장할 벌집을 밀랍으로 어떻게 만들어 자신들과 가족들, 심지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 먹을 것을 제공하는지를 압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여왕벌은 알을 낳고, 나머지는 그 알을 돌보며, 감춥니다. 벌들은 일종의 정부(*government*) 아래 살아가는데, 그걸 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벌들은 일벌은 놔두고 수벌은 날개를 잘라 내쫓습니다. 쓰임새 있어 이렇게 천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국으로부터 심긴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요, 꿀벌의 밀랍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류를 위해 양초로 쓰이며, 꿀은 음식의 풍미를 더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계속해서, 동물계의 미물(微物)인 애벌레들한테서는 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는지요! 애벌레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음식물 섭취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고치를 만들어 마치 태내에 들어가듯 제 몸을 감싸는 법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족 보존을 위해 부화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먼저 실을 자아 제 몸을 돌돌 마는 유충 및 번데기 시절을 밟다가 이 수고가 끝나면 변형, 날개를 단 새로운 몸을 입어 나오는데, 마치 천국인 양 공중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며, 짝을 지어 알을 낳고 대(代)를 이어가지요.

**[3]** 이들 특별한 경우들 말고도 일반적으로 공중을 나는 모든 생물은 자기들이 먹을 적절한 먹이들로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를 가면 구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이들은 또 자기들이 살 등지 짓는 법을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는 이렇게 짓고, 다른 종류는 또 저렇게 짓습니다. 그 밖에 등지에 알을 낳고 품는 법, 새

끼를 부화한 후 먹이는 법, 새끼들이 자라 등지를 떠날 때가 되면 독립시키는 법 등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아주 어릴 적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적을 알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압니다. 알 안에 태아의 형성과 영양공급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질서대로 갖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무수한 사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는 과연 이런 본능들이 영계 아닌 다른 어떤 근원, 곧 모든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다 몸이라는 옷을 입힌 상태로 나타나는, 또는 모든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자연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 들 다 이런 모든 선천적 지식을 그 안에 갖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들보다 아주 뛰어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은 합리라는 역량(合理, *rational faculty*)이 전혀 없어 자기들의 타고난 질서 안에 단지 머물 뿐 영계에서 나와 자기들 안에 심긴 것들을 파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계로 말미암아 사고(思考, *thought*)라는 걸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의 합리적 역량을 잘못 사용, 질서에 반(反)하는 삶을 살아 자기 안에 있는, 영계로 말미암은 것들을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야만 했고,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Divine means) 아래 천국 질서 안으로 회복되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109 식물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상응하는지 역시

많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씨앗들이 자라 나무가 되어 잎을 내며,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그 안에 다시 씨앗을 저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몇 마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어떤 질서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하면 여러 권이 될 것이며, 그 더욱 자세한 쓰임새들에 관한, 과학으로는 도저히 다 밝혀낼 수 없는 이들 쓰임새들에 관한 더 깊은 아케이나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 역시 영계, 즉 앞의 해당장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사람 형태인 천국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식물계 내 모든 세부적인 것 역시 사람한테 있는 것들과 어느 정도 관

련성을 가집니다. 이는 일부 지식층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계의 모든 것 또한 상응들이라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종종 정원에서 거기 있는 나무와 열매들, 꽃과 식물들을 보곤 하였고, 그럴 때면 저는 그것들이 천국의 무엇과 상응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과 함께 있는 영들과 대화하면서,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어떤 것들인지를 배우곤 하였습니다.

110 그러나 오늘날은 천국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세상 자연적인 것들이 상응하는 천국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상응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 사이 상응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보기를 들어 기꺼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땅 위 동물은 보통은 애정(affection)에 상응합니다. 순하고 유용한 동물은 선한 애정(good affections)에, 사납고 무익한 것들은 악한 애정(evil affections)에 말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소와 송아지는 자연적 마인드, 곧 마음에 관한 애정(the affections of the natural mind)에, 양과 어린양은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영적 마음에 관한 애정(*the affection of the spiritual mind*)에, 반면, 새는 그 종에 따라 자연적 혹은 영적 마음에 관한 지성적인 것들(*the intellectual things of the natural or the spiritual mind*)에 각각 상응합니다.<sup>78</sup>

※ 78. 상응으로 말미암아 동물은 애정을 의미함. 순하고 유용한 동물은 선한 애정을, 사납고 무익한 것들은 악한 애정을 의미 (AC.41, 45, 46, 142, 143, 246, 714, 716, 719, 2179, 2180, 3519, 9280) 영계에서 경험한 바를 가지고 설명 (AC.3218, 5198, 9090) 동물의 생명으로 유입되는 영계의 입류 (AC.1633, 3646) 상응에 의해 소와 송아지는 자연적 마인드에 관한 애정을 의미 (AC.2180, 2566, 9391, 10132, 10407) 양이 의미하는 것 (AC.4169, 4809), 어린양의 경우 (AC.3994, 10132) 나는 생물(*flying creatures*)은 지성적인 것을 의미 (AC.40, 745, 776, 778, 866, 988, 991, 5149, 7441), 영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그것들의 속(屬, *genera*)과 종(種, *species*)에 따른 차이 (AC.3219)

이런 이유로, 일종의 표상(表象, *representative*) 교회였던 고대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다양한 동물들, 이를

테면 소와 송아지, 어린양과 양, 숫염소와 암염소, 수양과 암양, 또 비둘기와 멧비둘기 등이 성례용(聖禮用, *a sacred use*)으로 바쳐졌고, 희생제물과 번제(燔祭, *burnt offerings*)가 그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들은 그 쓰임새에 있어서 영적인 것들과 상응하고, 천국에서는 그들을 그 상응들에 따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물이 그 종류별로 모두 애정들(*affections*)인 것은 그것들이 생동하기(*they have life*) 때문입니다. 또한 각 동물의 생명은 오직 애정에서 오며, 애정과 일치하는데요, 그 결과, 모든 동물에게는 그 생명의 애정과 일치하는 어떤 타고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자연적 면에 있어서는 동물과 유사하며, 그래서 보통들 말할 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친절하면 양 또는 어린양 같다 하고, 사나우면 곰이나 늑대, 교활하면 여우, 뱀 등과 같다 하는 것이지요.

**111** 식물계에도 일종의 비슷한 상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든, 정원은 천국의 지성과 지혜에 상응하는데,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정원, 낙원<sup>79</sup>이라고 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천국을 하늘에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있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 79. 상응에 의해 정원과 낙원은 지성과 지혜에 상응 (AC.100, 108), 경험으로부터 (AC.3220) 어떤 상응이 있는 모든 것은 말씀에서도 같은 걸 상징 (AC.2896, 2987, 2989 - 2991, 3002, 3225)

나무는 그 종류별로 선과 진리에 관한 퍼셉션과 지식(*the perceptions and knowledges of good and truth*)에 상응하는데 이것이 지성과 지혜의 근원(*the source of intelligence and wisdom*)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직접’ 지식(*firsthand knowledge*), 곧 학습을 통해서 얻는 간접 지식이 아닌, 계시 등으로 얻는 직접 지식을 말합니다. 천국의 지성, 지혜는 바로 이런 퍼셉션과 지식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 참고로, 퍼셉션(*perception*, 知覺)이란 천국에 충만한, 선이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인지를 아는, 일종의 영적 지각, 통찰이며, 이는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응에 익숙했던, 즉 상응 지식으로 일상을 살았던 고대인들은 숲에 들어가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sup>80</sup> 이것이 말씀에서 나무가 왜 그렇게 자주 언급되며, 천국과 교회, 사람이 왜 나무에 비유되는지, 가령, 포도나무, 올리브, 백향목 등,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왜 열매에 비유되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 80. 나무는 퍼셉션과 지식을 의미함 (AC.103, 2163, 2682, 2722, 2972, 7692) 이런 이유로, 고대인들은 그 상응을 따라 나무 아래 숲에서 신성한 예배(*Divine worship*)를 드림 (AC.2722, 4552) 식물계의 갈래들, 가령 나무와 식물 안으로 흘러드는 천국의 입류 (AC.3648)

또 나무에서 나는, 특히 들에서 거두는 곡식을 통해 얻는 먹을 것은 선과 진리를 향한 애정들에 상응합니다. 지상 양식으로 자연적 생명이 영양공급을 받듯,<sup>81</sup> 이들 애정들로 영적 생명이 영양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곡식을 통해 얻는, 특별히 삶을 지탱하는 식량이며, 모든 먹을 것을 대표하는 빵(*bread*)이라는 것은 모든 선에 대한 애정에 상응합니다.

※ 81. 상응으로, 먹을 것은 영적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생명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것  
을 상징 (AC.3114, 4459, 4792, 4976,  
5147, 5293, 5340, 5342, 5410, 5426,  
5576, 5582, 5588, 5655, 5915, 6277,  
8562, 9003)

주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빵 덩  
어리들이 성막 떡상 위(*on the table  
in the tabernacle*, 聖幕)에 놓여 ‘진  
설병’(陳設餅, *the bread of faces*)이  
라 하며 거룩한 쓰임새(*a holy use*)  
를 가졌던 이유도 다 이 상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희생과 번제  
(*sacrifices and burnt offerings*)로  
드려진 모든 신성한 제사(*the Divine  
worship*) 역시 이름하여 ‘빵’(떡)  
이라 하였지요. 더욱이 이 상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회의 가장 거룩한  
예전(*the most holy act of worship  
in the Christian church*)이 성찬(聖  
餐, *the Holy Supper*), 곧 빵과 포  
도주가 주어지는, 떡과 잔으로 행해  
지는 성찬이 된 것입니다.<sup>82</sup>

※ 82. 빵은 사람의 영적 생명에 영  
양을 공급하는 모든 선을 상징 (A  
C.2165, 2177, 3478, 3735, 3813, 421  
1, 4217, 4735, 4976, 9323, 9545, 106  
86) 이것이 성막 안 떡상 진설병의  
상징 (AC.3478, 9545) 희생제물을  
일반적으로 빵이라 하였음 (AC.216

5) 빵은 모든 먹을 것을 포함 (AC.2  
165) 그래서 빵은 모든 천적 영적  
양식을 상징 (AC.276, 680, 2165, 21  
77, 3478, 6118, 8410)

이 몇 가지 보기들로 상응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12 상응에 의해 천국과 이  
세상 간 결합이 어떻게  
되는가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목적(*ends, p  
urposes*), 곧 용도(*uses*), 기능(*funct  
ions*), 쓰임새의 나라요, 또는 같은  
말이지만, 쓰임새, 곧 목적의 나라입  
니다. 이런 이유로 온 우주는 쓰임  
새라는 것이 어디에서나 행동이나  
결과로(*in act, or in effect*), 즉 처  
음엔 천국, 나중엔 이 세상,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어져 자연이라는 가장  
바깥 단계에 있는 것들(*the outmost  
things of nature*)로 나타나는 식으  
로 그렇게 옷 입혀질 수 있도록 신  
성(*the Divine*, 주님)에 의해 창조되  
고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간,  
혹은 이 세상과 천국 간 상응은 쓰  
임새들이라는 것을 통해서이며, 쓰  
임새들이란 결합이라는 것, 쓰임새  
들이 어떤 형태의 옷을 입은 것들(*t  
he forms*)이 상응들이며, 그들(*the f*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orms)이 쓰임새들의 형태들인 만큼 만 결합들입니다.

※ 즉 지음 받은 목적대로 쓰임 받고 있을 때에만 사람은 사람대로, 사물은 사물대로 천국과 상응 중에 있으며, 결합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자연계의 세 가지, 곧 동, 식물계 및 광물계에서 질서에 맞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쓰임새의 형태이거나 혹은 어떤 용도 있어 지음 받은 결과물들인데, 이것이 바로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왜 상응들인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그가 주님의 질서(Divine order)와 일치하는 한, 즉 그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in love to the Lord and in charity toward the neighbor) 있는 한, 그의 행위는 형태를 띤 쓰임새(uses in form)이며, 상응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 그는 천국과 결합합니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보통은 쓰임새 실천을 의미합니다.<sup>83</sup>

※ 83. 모든 선은 쓰임새로부터, 그리고 쓰임새와 일치하는, 그 기쁨뿐 아니라 그것의 퀄리티를 가짐. 그런 것이 쓰임새라는 것이요, 그런 것이 선 (AC.3049, 4984, 7038) 천사적 생명은 사랑과 체어리티의 선, 즉 쓰

임새를 수행함으로 이루어짐 (AC.454) 주님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천사들은 사람한테서 오직 그 목적, 곧 쓰임새만 보심 (AC.1317, 1645, 5854) 주님의 나라는 쓰임새의 나라, 즉 목적의 나라 (AC.454, 696, 1103, 3645, 4054, 7038) 주님을 섬기는 것은 쓰임새를 수행하는 것 (AC.7038) 사람의 하나하나와 모든 것이 쓰임새를 위해 창조됨 (AC.3626, 4104, 5189, 9297) 또한 쓰임새로부터, 즉 쓰임새는 사람의 유기적 형태보다 우선함, 이는 쓰임새를 수행하기 위한 것, 쓰임새는 천국을 통해 주님의 입류로 말미암는 것 (AC.4223, 4926) 더욱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내면(interior)은 그가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 쓰임새로부터, 그리고 쓰임새를 위해 형성됨 (AC.1964, 6815, 9297) 결론적으로 사람이란 자기 안에 있는 쓰임새와 같은 존재 (AC.1568, 3570, 4054, 6571, 6935, 6938, 10284) 쓰임새는 그것을 위한 목적 (AC.3565, 4054, 4104, 6815) 쓰임새는 처음과 나중, 곧 사람의 모든 것 (AC.1964)

※ 거듭 그러므로 자기를 지으신 주님께 자신의 쓰임새를 여쭙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소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 되어 나중엔 쪽정이처럼 버려지고 맙니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다.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힘써야 할 일과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며, 그 가장 기본이 바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은 자연계와 영계가 서로 연결되는 수단, 즉 결합의 매개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안에 자연계와 영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57번 글 참조). 그 결과, 사람은 영적인 정도만큼만 결합의 매체이지만, 반면 자연적이기만 하고 영적이지는 않은 사람은 그만큼 결합의 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런 매체 역할과 상관없이도 신성한 입류(*a Divine influx*)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 관련된 것들 안으로는 유입되지만, 사람의 합리적 역량(*rational faculty*), 즉 이성적 사고 능력 안으로는 유입되지 않습니다.

※ 즉 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님의 신성이 그의 걸음으로만 유입될 뿐 그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 안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의지(*will*) 안으로는 직접 들어가시지만 이해(*understanding*) 안으로는 의지를 거쳐 간접적으로 들어가시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의지 자체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3** 신성한 질서(*Divine order*)를 따르는 모든 것은 천국과 상응하는 반면, 신성한 질서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지옥과 상응합니다. 천국과 상응하는 모든 것은 선과 진리에 관련되지만, 지옥과 상응하는 것들은 악과 거짓에 관련됩니다.

**114** 잠깐 상응들의 지식과 그 쓰임새에 대해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영계 즉 천국은 상응들에 의해 자연계와 결합하며, 이런 연유로 천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 역시 상응들을 통해서입니다. 천국 천사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 사람처럼 하지 않는 반면, 사람은 상응들에 관한 지식에 익숙해지면 그 마음의 생각들에 관하여 천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따라서 그의 영, 곧 속 사람은 그들과 연합(*to be conjoined with*)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사람 간 그런 일종의 결합(*such a conjunction of heaven with man*)이 있을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수 있도록 말씀(*the Word*)은 순전히 상응들, 곧 그 안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상응물이 되는 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sup>84</sup>

※ 84. 말씀은 순전히 상응들로 기록됨 (AC.8615) 말씀으로 사람은 천국과 결합함 (AC.2899, 6943, 9396, 9400, 9401, 10375, 10452)

따라서 사람에게 만약 상응 지식이 있으면 그는 말씀의 영적 의미(*the spiritual sense of the Word*), 곧 속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글자의 의미(*the sense of the letter*), 곧 겉뜻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아케이나(*arcana*, 秘義)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문자의 의미(*a literal sense*)가 있고, 영적 의미(*the spiritual sense*)가 있는데, 문자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영적 의미는 천국에 있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세상 간 결합이 상응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일점일획(一點一劃, *the least jot*)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상응인 그런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sup>85</sup>

※ 85. 말씀의 속뜻에 관하여는 계시록에 관한 내용 중 ‘백마’(白馬, *White Horse*)라는 소책자를 참조

115 제가 천국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최초의 사람들인 태고인들(太古人들, *the most ancient men*)은 천적(天的, *celestial*)인 사람들이었으며, 상응들 자체(*correspondences themselves*)로 생각할 줄 알았던, 즉 그들 눈앞 세상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것들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들은 천사와 친하게 지내며 대화할 수 있었고, 그렇게 천국은 그들을 통해 세상과 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 시대를 황금시대(黃金, *the Golden Age*), 곧 고대 문인들이 ‘그때는 하늘에 사는 이들이 사람과 함께 지냈고, 친구처럼 서로 사귀었다’고 말하던 시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할 때, 상응들 자체로 하는 대신, 상응들에 관한 지식으로 했고. 그때에도 천국과 사람 간 결합은 있었지만 덜 친밀했습니다. 이 시대를 은 시대(銀, *the Silver Age*)라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사람들은 상응 지식은 있었으나 그 지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은 앞서 영적 선 안에 있었던 선조와 달리 이들은 자연적 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동 시대(銅, *the*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Copper Age)라 했습니다. 이후 사람은 점점 외적(外的, *external*, 겉)이 되어가다가 끝내는 육적(肉의, *corporeal*, 물질, 형체)이 되었고, 그 결과 상응 지식을 완전히 상실, 그와 함께 천국과 천국 관련 많은 것들 또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들을 금, 은, 동<sup>86</sup>으로 이름한 것도 상응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상응으로 인해 금은 태고인들이 지녔던 천적 선을, 은은 이어진 고대인들의 영적 선을, 구리는 그 다음 후손들의 자연적 선을 상징합니다. 반면, 철은 가장 나중 시대에 취한 이름으로, 선에서 떠난 굳은 진리를 말합니다.

※ 86. 상응에 의해 금은 천적 선을 의미 (AC.113, 1551, 1552, 5658, 6914, 6917, 9510, 9874, 9881) 은은 영적 선, 즉 천적 기원에서 오는 진리를 의미 (AC.1551, 1552, 2954, 5658) 동은 자연적 선을 의미 (AC.425, 1551) 철은 질서의 가장 바깥에 있는 진리를 의미 (AC.425, 426)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상응’을 다루었는데, 다만 지난주는 천국과 사람 간이었다면, 오늘은 천국과 이 세상

간, 곧 이 세상 자연계 전체인 동, 식물 및 광물계에 관한 상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상응’이라는 게 과연 뭔지, 천국과 세상 간 상응을 통한 결합에 있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하여 가령, 유대교의 각종 제의의 의미와 그때 드러지는 동물들, 떡상의 진설병, 주님의 성찬 시 떡과 잔, 빵과 포도주의 의미 및 다니엘서 등에 나오는 황금 및 은, 동, 철 시대의 의미 등에 대하여 정말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천국에서 비롯된 내적인 내용들이어서 내적 존재들인 천사들한테는 아주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겠지만 겉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거듭거듭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부, 또 당부드리지만,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셔서 깊이 소화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10-30(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